

2023.12.13(수)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12-13 오전 6:43

수정한 날짜: 2023-12-13 오전 7:26

2023.12.13(수) 증권사리포트

LG이노텍

중장기 우려에 가려진 최대 실적

[\[출처\] 하나증권 김록호 애널리스트](#)

4Q23 Preview: 기존대비 소폭 하향

LG이노텍의 23년 4분기 매출액은 7조 2,683억원(YoY +11%, QoQ +53%), 영업이익은 5,134억원(YoY +174%, QoQ +180%)으로 전망. 우호적인 환율을 반영하여 기존대비 매출액은 소폭 상향 조정한 반면 영업이익은 하향 조정 북미 고객사향 카메라모듈 공급은 기존 전망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파악. 신규 모델의 판매량이 중국에서는 소폭 부진한 반면에 미국 및 유럽에서는 양호해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건조한 흐름이 지속. 아울러 프로 라인업 선호도 역시 뚜렷해 기존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다만, 연말 관련 비용들이 일부 반영되며 영업이익은 컨센소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추정

Apple은 여전히 카메라 스펙 상향 도모

LG이노텍이 분기 최대 실적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2024년 및 이후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 때문. 스마트폰의 카메라 관련 스펙이 더 이상 상향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 외형 성장이 제한될 걱정이 지배적 다만, 2024년에도 폴디드 줌의 확대 적용, Vision Pro 출시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성은 상존. 뿐만 아니라 Apple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DSLR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여전히 스펙 상향을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 예를 들어 접사 사진의 퀄리티 향상, 사진이 아닌 동영상에서 보다 높은 화질 구현, Vision Pro와 연동되어 3D 공간을 보다 원활하게 표현하기 위한 고민 등. 이와 관련해 LG이노텍 광학솔루션의 외형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파악

확실한 저평가

LG이노텍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40,000원을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1) 23년 4분기 최대 실적 갱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않았고, 2) Apple의 카메라 스펙 상향 니즈로 인해 중장기 성장 가능성도 상존하며, 3) 24년 상반기 Vision Pro 준비로 인해 관련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PER은 2024년 기준 6.37배로 현저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의 업사이드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추천. 주요 고객사인 Apple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20% 상승해 iPhone 15 시리즈 관련 우려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 LG이노텍의 주가도 이에 동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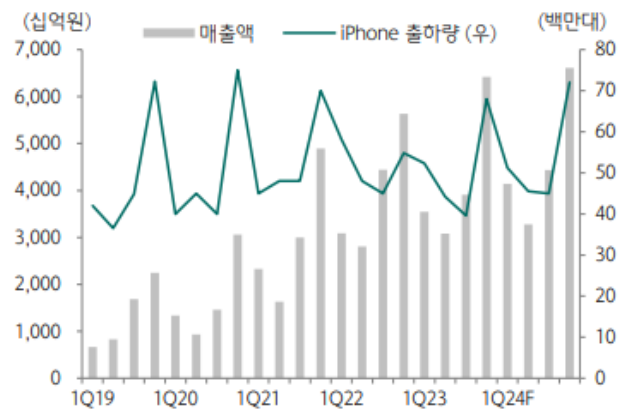
| 투자지표 | 2021 | 2022 | 2023F | 2024F |
|-----------|----------|----------|----------|----------|
| 매출액 | 14,945.6 | 19,589.4 | 20,315.0 | 22,085.0 |
| 영업이익 | 1,264.2 | 1,271.8 | 860.6 | 1,239.3 |
| 세전이익 | 1,193.2 | 1,135.1 | 737.1 | 1,172.2 |
| 순이익 | 888.3 | 979.8 | 554.6 | 879.2 |
| EPS | 37,532 | 41,401 | 23,434 | 37,147 |
| 증감율 | 276.19 | 10.31 | (43.40) | 58.52 |
| PER | 9.70 | 6.10 | 10.09 | 6.37 |
| PBR | 2.60 | 1.40 | 1.18 | 1.01 |
| EV/EBITDA | 4.70 | 3.44 | 3.74 | 2.88 |
| ROE | 30.94 | 25.85 | 12.31 | 17.11 |
| BPS | 140,048 | 180,255 | 200,573 | 233,570 |
| DPS | 3,000 | 4,150 | 4,150 | 4,150 |

도표 3. iPhone 출하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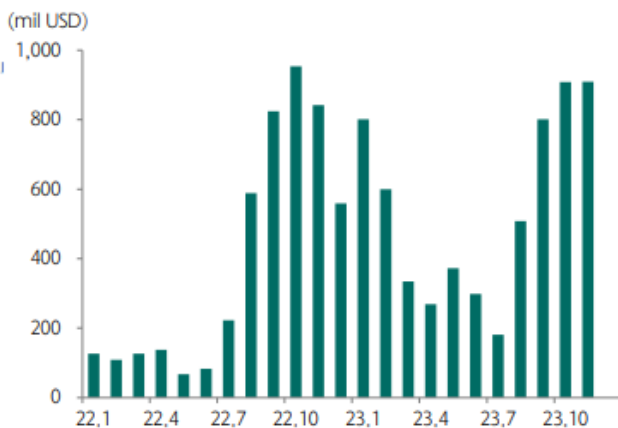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도표 4. 광학솔루션 매출액 vs iPhone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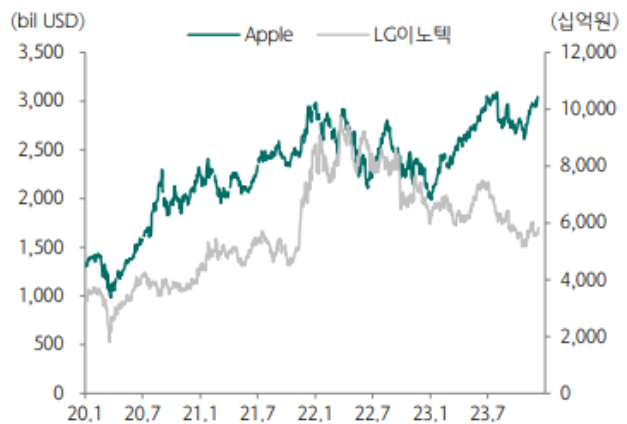
자료: LG이노텍, Counterpoint, 하나증권

도표 5. 한국 카메라 모듈 수출 금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6. Apple vs LG이노텍 시가총액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삼성전자

4Q23 Preview : DS 호전, DX 부진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4Q23 영업이익 4조원 예상

모바일 수요 개선 덕분에 DS(반도체) 영업적자가 전분기 -3.75조원에서 4Q23 -1.27조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DRAM과 NAND bit growth는 각각 Guidance를 상회한 15%, 8% QoQ가 예상되며, ASP는 각각 11%QoQ 상승이 예상된다. OPM도 DRAM 12%(+18%pt QoQ), NAND -39%(+34%pt QoQ)로 개선되어, 메모리 영업손실은 -0.92조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비메모리도 매출이 20%QoQ 증가하고 손실 규모도 절반 줄어들 전망이다.

프리미엄 제품 수요 감소로 DX 실적은 부진

소비경기 둔화에 따른 프리미엄 제품 수요 감소로 4Q23 DX 영업이익은 2.92조원(MX 2.6, VD 0.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81조원 감소 예상된다. 특히 Z폴드5/플립5 판매량은 전작 대비 감소 예상되며, 올해 동사 폴더블폰 판매량도 9백만대에 그쳐, 작년 실적에 비해 소폭 역성장이 예상된다.

바닥은 지났으나 U자형 회복, 긴호흡의 관점에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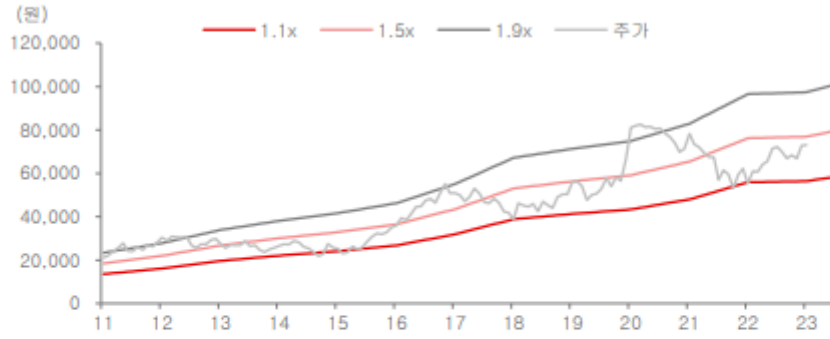
연말 PC, 스마트폰 신모델들의 메모리 탑재량 증가가 관측되고, 재고도 상반기 정점을 치고 감소 추세에 있어 업황 바닥은 지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 지속과 글로벌 소비 경기 둔화 추세에는 변한 게 없어, 최근 반도체 가격 반등세가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모듈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최고치에 도달한 점과 칩메이커들의 증산 움직임을 고려할 때 내년초 이후 현물가격 약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과거 Cycle과는 달리 U자형 회복이 진행됨을 염두에 두고, 보다 긴호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목표주가 82,000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Fig. 1: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 요약

| | 2021 | 2022 | 2023F | 2024F | 2025F |
|-----------|---------|---------|---------|---------|---------|
| 매출액(십억원) | 279,605 | 302,231 | 261,893 | 300,431 | 318,457 |
| 영업이익 | 51,634 | 43,377 | 7,746 | 29,882 | 39,312 |
| 세전이익 | 53,352 | 46,440 | 12,295 | 32,945 | 42,767 |
| 순이익[지배] | 39,244 | 54,730 | 12,817 | 25,919 | 31,963 |
| EPS(원) | 5,777 | 8,057 | 1,887 | 3,816 | 4,706 |
| 증감률(%) | 50.4 | 39.5 | -76.6 | 102.2 | 23.3 |
| PER(배) | 13.6 | 6.9 | 38.7 | 19.1 | 15.5 |
| PBR | 1.8 | 1.1 | 1.4 | 1.3 | 1.2 |
| EV/EBITDA | 5.0 | 3.4 | 8.6 | 5.6 | 4.7 |
| ROE(%) | 13.9 | 17.1 | 3.7 | 7.2 | 8.2 |
| 배당수익률 | 1.8 | 2.6 | 2.0 | 2.0 | 2.0 |

자료: 삼성전자,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삼성전자 주가와 P/B 밴드 차트



자료: BNK투자증권

Fig. 3: 글로벌 반도체 출하 성장률과 G20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WSTS, BNK투자증권

Fig. 4: DRAM Cycle (= ASP/bit)



자료: WSTS, BNK투자증권



삼성SDI

내년을 향한 시점

[출처] 키움증권 김지산 애널리스트

4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전동공구와 ESS 미흡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5,232억원에서 4,481억원(QoQ -10%, YoY -9%)으로 하향 조정한다. 당초 예상에 비해 1) 전동공구용 원형전지가 고객사 재고 부담으로 인해 더욱 부진하고, 2) ESS는 LFP 주도 트렌드 속에서 NCA 기반 신제품 효과가 미흡한 것 같다. 3) 자동차전지는 경쟁사들에 비해 가동률 및 수익성 면에서 여전히 양호하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이후 북미시장 수요가 일부 둔화되는 조짐이 감지된다.

전자재료는 OLED소재 주도로 유의미한 반등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되, 자동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목표주가는 75만원을 유지한다.

언론에서 언급한 삼성디스플레이의 대규모 배당이 성사된다면, 자동차전지 투자 재원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10월까지 누적으로 37%(YoY) 성장한 1,100만대를 기록했는데, 9월과 10월 성장률은 각각 26%, 29%로 누적 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이다. 올해 성장을 주도한 미국 시장도 10월에는 성장률이 35%로 둔화됐다.

동사는 주고객인 BMW향 출하가 견고하기 때문에 타 고객향 출하 변동성을 상쇄하고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4분기에 전고체전지의 고객사 샘플 공급이 진행될 것이다. 경쟁사들이 사업화 시점을 연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동사는 2027년에 선제적으로 양산하기 위한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내년 자동차전지 고도화 진행, 전동공구 회복 강도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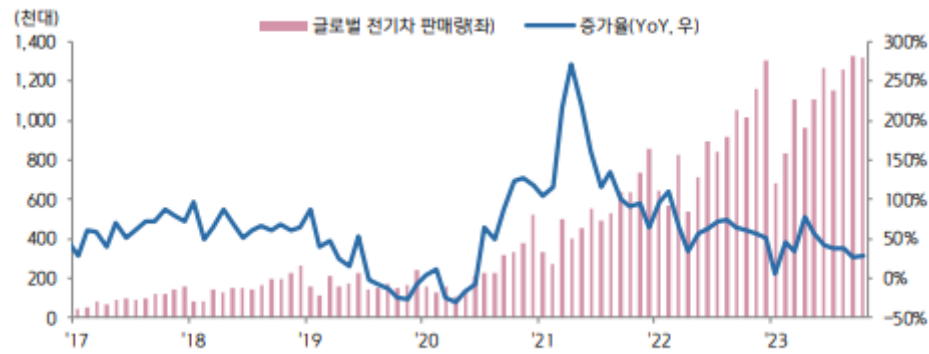
올해는 전동공구용 소형전지와 전자재료의 부진으로 인해 전사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내년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2조 530억원으로 추정된다. 관전 포인트로서 1) 실적 결정 변수가 되고 있는 전동공구의 수요 회복 강도가 관건인데, 거시 상황과 맞물려 하반기에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2) 자동차전지는 P6 배터리로 고도화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3) 46파이 원형전지, LFP ESS, NMx 자동차전지, 북미 합작 공장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4) 전자재료는 고부가 반도체소재가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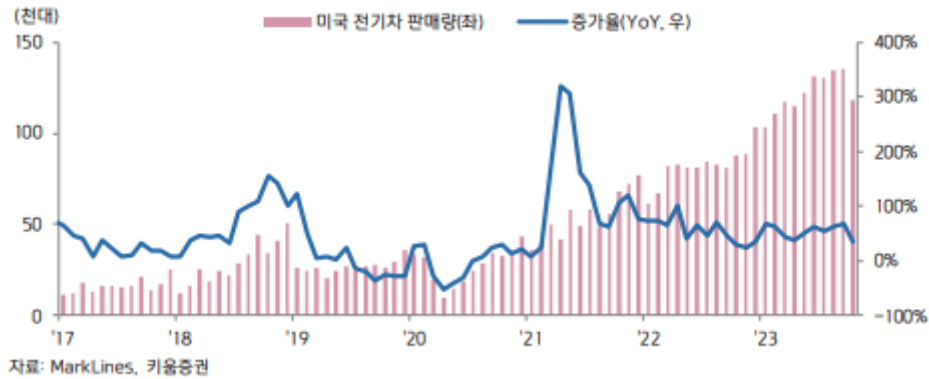
| (억원, IFRS) | 2021 | 2022 | 2023E | 2024E |
|--------------|---------|---------|---------|---------|
| 매출액 | 135,532 | 201,241 | 231,297 | 255,980 |
| 영업이익 | 10,676 | 18,080 | 17,697 | 20,530 |
| EBITDA | 23,197 | 32,713 | 34,706 | 43,633 |
| 세전이익 | 16,633 | 26,523 | 25,712 | 26,260 |
| 순이익 | 12,504 | 20,394 | 21,394 | 21,675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1,698 | 19,521 | 20,627 | 21,024 |
| EPS(원) | 16,621 | 27,736 | 29,307 | 29,872 |
| 증감률(%YoY) | 103.5 | 66.9 | 5.7 | 1.9 |
| PER(배) | 39.4 | 21.3 | 15.2 | 14.9 |
| PBR(배) | 3.14 | 2.52 | 1.71 | 1.55 |
| EV/EBITDA(배) | 20.8 | 13.4 | 10.2 | 8.4 |
| 영업이익률(%) | 7.9 | 9.0 | 7.7 | 8.0 |
| ROE(%) | 8.5 | 12.5 | 11.8 | 10.9 |
| 순부채비율(%) | 14.2 | 12.0 | 18.8 | 21.7 |

자료: 키움증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



미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





신세계인터내셔널
 요즘 핫한 그 브랜드 어디꺼?
[\[출처\] 유진투자증권 이해니 애널리스트](#)

올해 6개 브랜드(패션 4개, 화장품 6개) 런칭 완료. 내년에는 신규 및 중점 브랜드에 힘입은 턴어라운드 기대

2024년 매출 성장률 전망: 해외브랜드 +10%, 국내브랜드 +8%, 코스메틱 +12%, 자주 +3%

전사 매출액은 10월에서 12월로 갈수록 회복세 보이며, 11월에는 셀린 제외 시 월별 실적 플러스 전환

해외브랜드: 어그, 에르노 등 겨울 시즌에 강한 수입 브랜드 매출이 높은 두 자릿수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음

어그는 작년부터 국내외 셀럽들이 선택한 아이템으로 무신사 신발 카테고리 10위권 내 다수 차지

코스메틱: 해외 코스메틱 견조한 매출로 하이 싱글 성장 예상. 22년말 런칭 2개 브랜드 합산 매출 100억원대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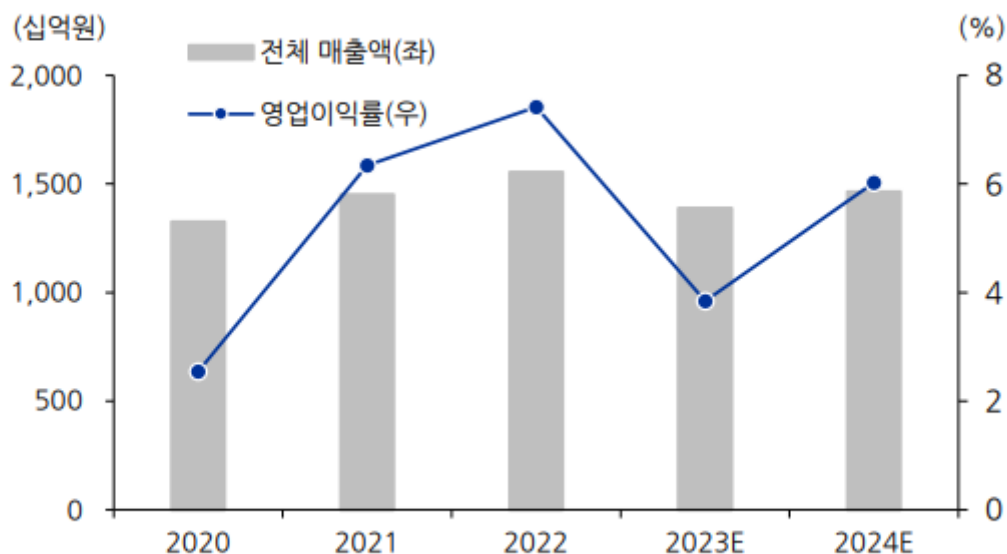
국내브랜드: 톰보이 및 고급 소재 브랜드(델라라나, 일라일) 위주 두 자릿수 성장

목표주가 25,000원으로 하향, 투자 의견 '매수' 유지

| 12월 결산(십억원) | 2021A | 2022A | 2023E | 2024E |
|--------------|-------|-------|-------|-------|
| 매출액 | 1,451 | 1,554 | 1,388 | 1,464 |
| 영업이익 | 92 | 115 | 53 | 88 |
| 세전손익 | 105 | 137 | 77 | 114 |
| 당기순이익 | 83 | 119 | 56 | 90 |
| EPS(원) | 2,300 | 3,313 | 1,564 | 2,518 |
| 증감률(%) | 61.2 | 44.1 | -52.8 | 61.0 |
| PER(배) | 12.7 | 7.5 | 10.9 | 6.8 |
| ROE(%) | 12.1 | 15.3 | 6.6 | 10.0 |
| PBR(배) | 0.3 | 1.1 | 0.7 | 0.7 |
| EV/EBITDA(배) | 8.1 | 6.3 | 5.7 | 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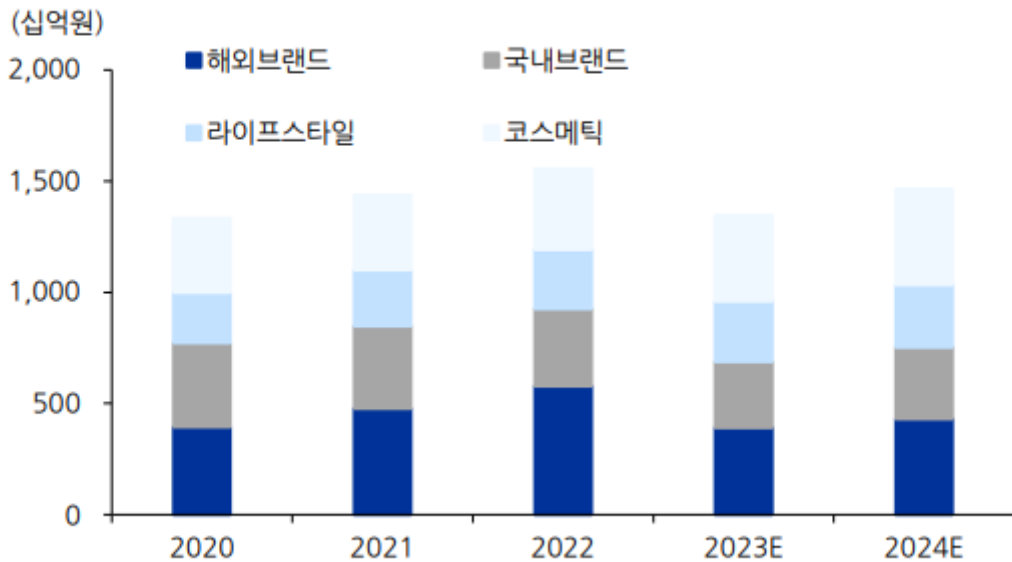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회사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회사 자료, 유진투자증권





범한퓨얼셀

다시 시작된 잠수함 발주

[\[출처\] NH투자증권 정연승 애널리스트](#)

장보고급 잠수함, 6번함(배치2-3) 발주 시작

범한퓨얼셀은 잠수함용, 건물용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 건설 사업을 영위. PEMFC(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방식의 연료전지 제작 및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납품하고 있으며, 소형 발전용(건물용), 모빌리티용 연료전지로도 사업 확장 중
 장보고3 배치2의 3번함(장보고3 사업의 6번함)에 대해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범한퓨얼셀의 잠수함용 연료전지 발주 재개 전망. 잠수함 수출 확대에 따른 추가 성장 기회도 존재.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향 수출 성사가 중요10kw 급 건물용 연료전지 판매로 수소충전소 매출 공백 일부 만회. 다만 수소충전소 경쟁 심화로 의미 있는 매출 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수주 공백으로 단기 실적 부담 존재, 증장기 사용처 확대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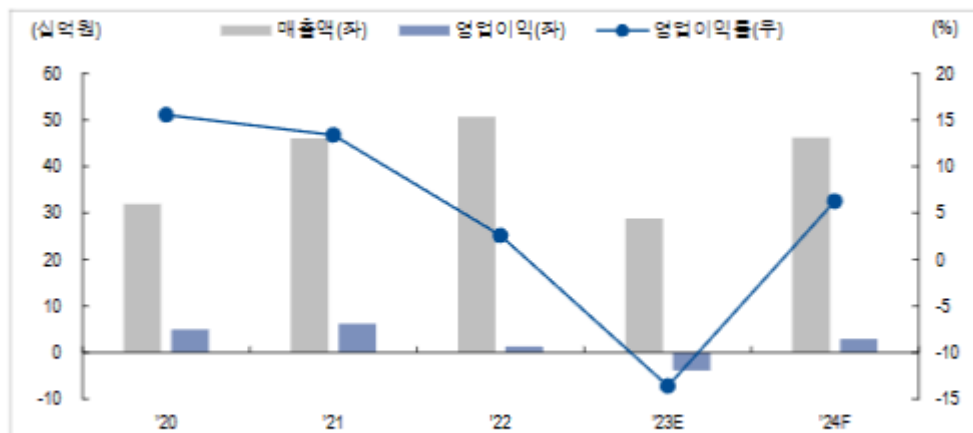
수소충전소 경쟁 심화에 따른 수주 공백, 잠수함 연료전지 관련 매출 공백으로 2023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0억원, 영업적자 19억원을 기록. 외형 성장을 위해 건물용 연료전지, 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Elcogen과 MOU 체결)도 개발 중으로 연료전지 기술 다변화를 통해 외형 성장 노력

중장기 잠수함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매출 확대는 기회요인이나, 2022년 수준을 상회하는 매출액 증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 | 2021 | 2022 | 2023E | 2024F |
|-----------|-------|-------|--------|-------|
| 매출액 | 46.1 | 50.7 | 28.9 | 46.2 |
| 증감률 | 44.4 | 10.0 | -43.0 | 60.0 |
| 영업이익 | 6.2 | 1.3 | -3.9 | 2.9 |
| 증감률 | 24.4 | -78.8 | 적전 | 흑전 |
| 영업이익률 | 13.4 | 2.6 | -13.6 | 6.3 |
| (지배지분)순이익 | 3.3 | 2.3 | -2.5 | 3.9 |
| EPS | 617.3 | 289.6 | -282.6 | 450.7 |
| 증감률 | -16.1 | -53.1 | 적전 | 흑전 |
| PER | 0.0 | 90.1 | N/A | 40.5 |
| PBR | 0.0 | 2.1 | 1.5 | 1.5 |
| EV/EBITDA | -1.8 | 62.9 | N/A | 15.9 |
| ROE | 72.1 | 3.4 | -2.4 | 3.7 |
| 부채비율 | 127.2 | 21.9 | 21.2 | 20.9 |
| 순차입금 | -12.4 | -71.4 | -73.8 | -65.8 |

단위: 십억원, %, 원, 배
 주: EPS, PER, PBR, ROE는 지배지분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범한퓨얼셀 연간 매출,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범한퓨얼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SK
 변화의 의지가 담긴 의사결정
[\[출처\] BNK투자증권 김장원 애널리스트](#)

연말 인사에 담긴 의미

기업의 인사는 매년 한두차례씩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으로 큰 의미가 없거나,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년 SK는 예년과 달랐다. 그동안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을 오너와 함께 고민해 오던 분들에게 변화가 생겼다. 단순히 세대의 변화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무게감에서 남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 같다. 사업지주이면서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투자활동에 대해 재점검과 다소 분산되어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재정립하는 것은 역량을 활용하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권한이 부여된 것은 변화의 폭이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이 높아진 비상장자회사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비상장자회사는 SKE&S다. 지난 3분기는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7.4% 증가했고, 전분기대비로는 9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이 3.3%, 8.2% 증가한데 비해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신규 발전소 상업 가동과 LNG 자체 조달에 의한 원가 경쟁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SMP는 2.6% 하락했다. 3분기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여주발전소로 양적 확장에 의한 개선 효과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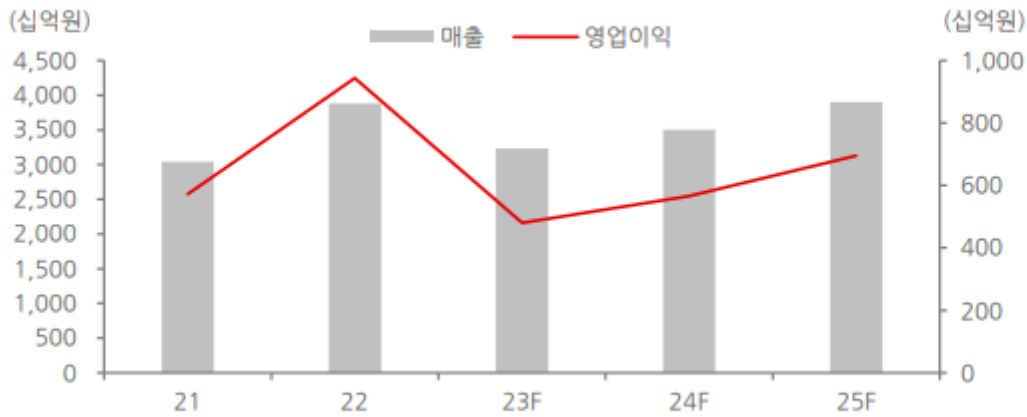
지주의 수익과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SKE&S, 실트론, 머티리얼즈CIC의 실적 개선과 턴어라운드 전망을 반영하여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대비 7% 상향하여 230,000원을 제시한다

Fig. 1: SK 연결재무제표 요약

| | 2021 | 2022 | 2023F | 2024F | 2025F |
|-----------|--------|---------|---------|---------|---------|
| 매출액(십억원) | 97,204 | 134,552 | 132,379 | 133,570 | 137,231 |
| 영업이익 | 4,860 | 8,005 | 5,798 | 6,218 | 6,864 |
| 세전이익 | 5,982 | 5,909 | 1,080 | 4,886 | 6,310 |
| 순이익[지배] | 1,966 | 1,099 | 373 | 1,283 | 1,798 |
| EPS(원) | 27,592 | 14,705 | 5,042 | 17,388 | 24,380 |
| 증감률(%) | 933.4 | -46.7 | -65.7 | 244.9 | 40.2 |
| PER(배) | 9.1 | 12.9 | 33.9 | 9.8 | 7.0 |
| PBR | 0.8 | 0.6 | 0.5 | 0.5 | 0.4 |
| EV/EBITDA | 8.2 | 7.1 | 9.4 | 9.8 | 9.5 |
| ROE(%) | 10.2 | 5.1 | 1.6 | 5.2 | 7.0 |
| 배당수익률 | 3.2 | 2.6 | 2.9 | 2.9 | 2.9 |

자료: SK,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5: SK 첨단소재 실적 전망



주: 실트론과 머티리얼즈 CIC 합산 자료: 실적발표자료, 사업보고서, BNK투자증권





와이랩

24년 지켜볼 만한 네이버웹툰 짝꿍

[\[출처\] 신한투자증권 김아람 애널리스트](#)

네이버웹툰 內 팬덤이 탄탄한 스튜디오

와이랩은 지난 7월 상장한 웹툰 스튜디오로 주로 네이버웹툰에 작품을 공급한다. 대표작으로 <참교육>, <스터디그룹>, <아일랜드>, <부활남> 등이 있다. 타 웹툰 CP사와 가장 큰 차이는 ① 작가를 직접 고용해 회사가 2차 저작물에 대한 우선권(사업권/저작권)을 가져간다는 점, ② 드라마 제작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2년 기준 매출 비중은 웹툰 제작 39%, 영상 제작 51%, 웹툰 교육 3%, 웹툰 현지화 7%, 웹툰 OSMU 1%다.

기대감을 낮추고 시작할 23년

23년 영업이익은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3Q23 누적 영업이익이 -25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대표작 <참교육>이 9/16부터 휴재이고 드라마 <스터디그룹>이 이제 막 촬영을 하고 있어서다. 와이랩은 웹툰 흥행/드라마 판권 판매 시점에 따라 분기 이익 변동이 클 수 있다.

24년에는 좋아지는 그림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4Q23 실적발표 이후부터는 관심 가져볼 기업으로 추천하는데, 23년 대비 24년 기대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24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와이랩은 상장사 중 가장 유의미한 규모로 네이버웹툰에 작품을 공급한다. 상장후 보호예수물량 해제로 인한 수급 부담도 줄어들고 있어 네이버웹툰과 함께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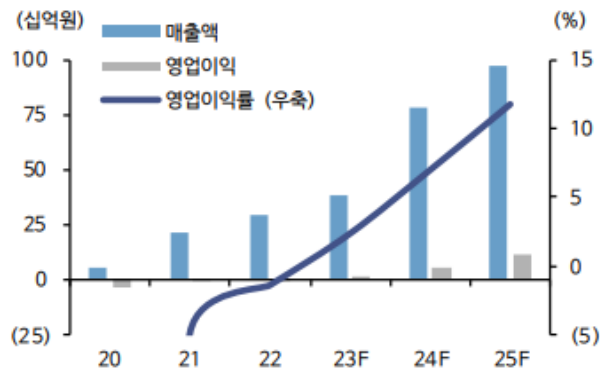
실적 측면에서는 상반기중 <참교육>의 복귀, 블루스튜디오 3기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 웹툰 제작 매출액이 회복하고 드라마 <스튜디오>이 하반기 티빙에 방영되면 24년 재차 흑전이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튜디오'이기에 가지는 장점에 주목한다. 웹툰은 점차 다(多)인원이 만들고 작품 팬덤이 작가 팬덤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작가홈' 등). 와이랩은 흥행 IP와 이를 만든 경험이 많은 우수한 작가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인기 작품/세계관에 대한 사업권을 회사가 가져가 IP 레버리지를 누리기 유리하다

| 12월 결산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BPS (원) | PER (배) | EV/EBITDA (배) | PBR (배) | ROE (%) | 순차입금비율 (%) |
|--------|--------------|---------------|--------------|------------|------------|------------|------------------|------------|------------|---------------|
| 2018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 2019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 2020 | 5.4 | (3.4) | (2.0) | (1.0) | (87) | N/A | (1,028) | 0.0 | (5.8) | 0.0 |
| 2021 | 21.7 | (1.1) | 0.5 | 0.5 | 38 | 흑전 | 852 | 0.0 | 15.3 | 0.0 |
| 2022 | 29.8 | (0.4) | (0.5) | (0.6) | (46) | 적전 | 875 | 0.0 | (19.3)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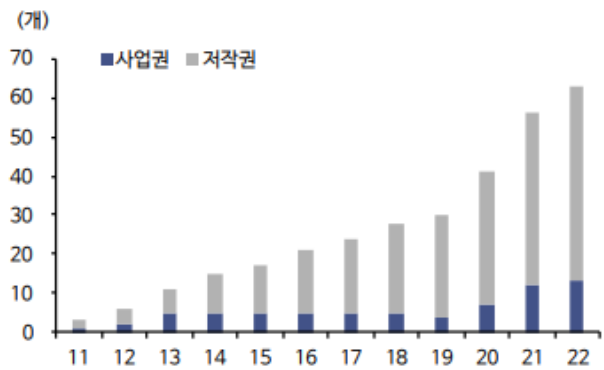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와이랩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증권신고서, 신한투자증권

연도별 IP 보유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웹툰-영상 제작 시너지 예시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와이랩 대표작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8,730 ▲ 70 +0.81% 116,325 69.05% 0.73% 1,010백만 호가 8,730 8,710 시 8,670 고 8,790 저 8,550 매수 매도 평

